

지역 소식통

고창군, 10대 중점관리대상 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군 10대 중점관리대상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추진계획 보고와 추진시 애로 사항 및 개선방향 토의 등 대표 평가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군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마인드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주관 평가에 대한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개의 2023년 중점관리대상 평가를 지정·관리하기로 하였다.

10대 고창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평가는 전국기초단체평가, 공공서비스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청렴도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업하기 좋은 고창만들기, 투자유치우수기관 선발 정부혁신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이다.

노형수 부군수는 "군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우수한 성과는 따라오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이 청년에게 행복UP 클래스 운영

싱그러운 4월을 맞아 부안청년UP센터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행복UP클래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년들의 문화활동 여건 조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행복UP클래스는 지난 14일에 니치향수 만들기를 시작으로 플라워클래스, 제과제빵, 가죽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 주 진행될 예정이며 부안 청년들이 새로운 취미생활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은 지난 3월에 모집된 청년강사 10명이 4월부터 6월까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회 초년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부관아 복원, 전문가 토론회 열린다

정읍시,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복원의 필요성·역사적 의의 등 각계각층 고견 수렴

정읍시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고부 농민봉기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보복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郡)에서 일개 면 소재지로 몰락했다.

특히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으로 가장 철저히 파괴됐으며, 조병갑 학정의 상징인 고부관아 또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유적지를 일리는 안내리만 남아있다.

일제는 조선 통치와 행정 체계에 대

한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지방의 관아 건물을 훼손하고 학교를 건립했다. 고부관아 역시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훼손·변형됨으로써 건축물이 제대로 남은 곳이 없는 데다 구체적인 자료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고부관아 복원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전북대 신병욱 교수의 '고부관아 복원의 필요성 및 역사적 의의 발표를 시작으로 6명의 토론회자가 참여한다.

정읍시 김양식 교수, 경희대 임형진 교수, 군산대 송석기 교수, 영남대 임

경희 연구원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 고부관아복원추진위 김철모 위원장 등은 종합토론에서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할 예정이다.

시는 고부관아 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정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희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민주화의 시작이 된 사건으로 그 시작은 고부 농민봉기라고 강조하면서 "훼손된 역사적 상징 공간을 복원해 역사 관광 교육자원과 혁명 도시 정읍의 위상을 높이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육환경 개선 위해 소중하게 사용”

부안군 기자단,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전북지역 일간신문 14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안군 기자단은 17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을 방문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난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평소 독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부안군 기자단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안군 기자단은 평소 기자단 운영을 위해 모은 회비 중 일부를 이번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기자단 관계자는 "부안군 기자단 소속 14명의 기자들은 부안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심도 있게 기사화하면서 부안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



고자 만장일치로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평소에도 부안발전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랑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안군 기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시기에 기탁해주신 장학금을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최초 청년상점 '청년1번가' 오픈

지역 청년 자립기반 조성 기대

고창군 최초로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된 상점(청년1번가)이 문을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선운산 도립공원 내 '청년1번가'를 개소했다. 고창군 최초의 청년상점은 청년들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청년 1번가는 선운산도립공원 내 미화용 군 소유 건물에 자리잡았다. 운영은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가 담당한다.

청년 1번가는 고창 농산물을 이용한 북분자제이드, 꽃차, 보리커피, 팥공방 등 다양한 음료, 디저트와 제철 농산물을 판매한다. 향후 청년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으로 구성된 청년꾸러미 선물세트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장터 참여, 지역축제 연계한 제품 개발, SNS 마케팅 등 빈틈 없는 홍보 전략을 전개해 온라인 판매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군은 '청년 1번가'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들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농·특산물을 더 편리하게 제공하여 지역 농

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자리잡아 이를 계기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방사선 비상구역 갑상샘 방호약품 점검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13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5개면(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에 보관 중인 주민보호용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30km)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으로, 해당 면에서 보관 중인 갑상샘 방호약품은 28,100정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갑상샘 방호약품의 보관상 이상 유무, 유효기한 확인, 배부계획·지침서 비치, 시건장치 등 관리실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갑상샘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 KI)은 원전 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갑상샘 기능 저하 또는 갑상샘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다.

갑상샘 방호약품은 복용 시 연령에 따라 복용량이 다르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고려한 연령대별 복용량은 만 12세 이상은 고용량 정제 1정, 만 3세~만 12세 미만은 고용량 정제 1/2정, 1개월~만 3세 미만은 저용량 정제 1정, 1개월 미만은 저용량 정제 1/2정을 복용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정제를 부셔서 가루로 만든 후 물 또는 오렌지 주스 등에 혼합하면 복용이 용이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관리 강화

정읍시가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본에

달하는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다.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

(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비료 살포와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3년 제2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17일 오전 군청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군, 경, 해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9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역할 등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안읍 매창

공원 일대를 주무대로 개최 예정인 2023년 제10회 부안비밀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이다.

위원회는 축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장 인원밀집, 안전관리상황 발생 시 조치 계획,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등 전반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부안군에서는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축제장 시설물 등의 현장점검을 축제 개최 1~2일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